



GR Korea | Expert Insights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까?

- 한·미 전략투자 협상의 주요 쟁점과 기업 시사점

자세히 보기 >

The GR Company



GR Korea | 자문위원 소개

천승우

Senior Consultant, Administrative Attorney

천승우 자문위원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공사를 비롯해 미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공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외교·경제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정부기관, 규제당국, 국제기구, 기업과의 폭넓은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변화가 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The GR Company



3,500억 달러, 단순한 투자 약속일까

2025년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대미 전략투자는 단순한 해외투자 계획이 아니다. 한국의 전략산업 투자와 미국의 관세 조정, 비관세장벽 및 공급망 협력을 묶은 통상·경제안보 패키지다. 조선·원전·반도체·AI·핵심광물 분야에서 미국은 제조시설과 일자리 확대를, 한국은 관세 부담 완화와 미국 시장 접근을 기대한다. 따라서 이 투자 협상은 양국 산업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가능하는 중요한 경제·통상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미 전략 투자

3,500억 달러

1,500억 달러

(42.9%)

2,000억 달러

(57.1%)

미국이 승인하는

조선 분야 투자

조선소 현대화, 유지·보수·정비(MRO),
자동화·인력양성,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전략투자 MOU에 따른

전략산업 투자

에너지(발전, 전력망, LNG 등)·반도체·
제약, 핵심광물·AI·양자기술 등

3,500억 달러는 어떻게 나뉠까

대미 전략투자 3,500억 달러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1,500억 달러는 미국이 승인하는 조선 분야 투자로, 조선소 현대화와 유지·보수·정비(MRO), 자동화, 인력양성 등에 활용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제약·핵심광물·AI·양자기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투자 MOU다. 한국은 이 MOU와 관련해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해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예상되면 금액과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 변화



투자 합의는 관세와 어떻게 맞물렸나

2025년 7월 한-미는 대미투자자와 관세 조정을 결합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당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기존 FTA의 사실상 무관세와 비교하면 신규 관세 15%가 설정된 것이다. 11월 공동 팩트시트에는 원칙적으로 한-미 FTA 또는 최혜국세율과 15%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담겼다. 한국 민간기업은 정부 간 전략투자 MOU와 구분되는 1,500억 달러의 미국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미투자 이행 절차



발표된 주요 기업별 투자&협력 계획

50억 달러

HD현대 × Cerberus
미국 조선소
현대화 투자 프로그램

50억 달러

한화오션
필리 조선소
생산역량 확대

30억 달러

LS그룹
미국 전력망
인프라 투자

LNG 장기 구매계약

한국가스공사
미국산 LNG
장기 구매계약 체결

투자 약속은 어떻게 사업이 될까

한국은 2026년 3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을 공포하고, 6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전략투자기금을 출범시켰다. 사업관리위원회는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법적 요소, 기업 참여와 미국 정부 지원을 검토한다. 국내 절차는 위원회 검토, 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의결, 국회 보고 또는 승인, 미국 측 협의로 이어진다. 또한 HD현대·Cerberus와 한화오션의 조선소 투자계획, LS그룹의 전력망 투자, 한국가스공사의 LNG 장기 구매계약도 발표됐다.



대미투자 첫 사업 확정, 다음은 어디일까

2026년 9월,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결정했다. 총사업비는 약 223억 달러 규모로, 정부는 장기 수익(20년간 약 432억~454억)을 통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협의 대상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다. 다만 두 사업은 투자 조건과 상업적 합리성 등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알래스카 LNG, 한·미 입장은 왜 다를까

미국 백악관은 10월 13일 한국의 대미 에너지 투자 패키지에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와 원전 8기 건설 사업 최대 1,200억 달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텍사스 가스발전소만 확정됐으며,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가 협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알래스카 LNG는 상업성 검토가 시작된 단계로, 투자 참여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 양국의 입장 차이는 투자 집행 속도와 상업성 검토를 둘러싼 협상의 주요 쟁점을 보여준다.

대규모 투자, 누가 위험을 부담할까

원전과 가스발전소는 지금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도 길어 위험 부담이 핵심 쟁점이다. 한국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현금흐름, 장기 구매계약, 정부 보증 범위와 손실 책임을 중시한다. 전력 판매처와 시 데이터센터의 장기 수요, 인허가, 연료비, 공사 지연도 따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외환·재정 부담과 미국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산업기반 약화를 우려한다. 반면 국내 부품 수출과 기술협력 확대 가능성도 제기돼 업종별 효과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미국기업

한국의 자본·제조·EPC·기자재 역량을 활용할 기회

산업	주요 기회	주요 위험
조선	미국 조선소 MRO 역량 강화 및 공급망 확대	한국 참여 요건, 투자 회수 심사
원전	원전 설계·현지 인허가 및 시장 접근에서 협력	사업성, 기업 참여, 투자 회수 심사
전력망 및 에너지	가스발전·송전망 LNG 및 시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공급망 확대	연료 가격, 인허가, 환경 규제
반도체	메모리·파운드리 및 첨단 패키징 공급망 강화	한국 투자 심사, 장기 계약 현금흐름 조건

한국기업

한국의 자본·제조·EPC·기자재 역량을 활용할 기회

산업	주요 기회	주요 위험
조선	미국 조선소 투자 및 MRO 시장 진출	현지 인력·노사 문제, 경쟁 및 정치적 반발
원전	EPC·기자재·정비 등 미국 원전 시장 진입	공사 지연, 비용 증가, 기술·지식재산권 이슈
전력망 및 에너지	발전설비·송전망 LNG 등 인프라 수주 확대	연료 가격, 전력시장 규제, 인허가 및 수요 불확실성
반도체	미국 시 생태계와 협력 및 현지 고객 확대	추가 투자 압력, 생산비용 상승

한·미 기업에는 어떤 기회와 위험이 존재할까

미국 기업은 한국의 제조·시공·기자재 역량을 활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한국 측 투자 심사에서는 사업성과 한국 기업의 지분·기술·운영 참여가 중요하다. 한국 조선기업에는 미국 조선소와 MRO 시장 진출 기회가, 원전기업에는 설계·시공·정비 참여 가능성이 있다. 전력망·에너지 분야는 인프라 수주, 반도체는 현지 고객 확대가 기대된다. 인력·노사 문제, 공사비 증가, 기술·지식재산권, 규제와 추가 투자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

첫 투자 확정 이후, 무엇이 중요할까

텍사스 가스발전소가 첫 대미 전략투자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은 여전히 협의 단계에 있다. 향후 협상의 핵심은 투자 규모보다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위험 분담에 있다. 한국은 투자 회수와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미국은 인허가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사업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부록.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 주요 내용 요약

백악관, 2025년 11월 13일 발표

1. 전략산업 투자

한국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광물, AI·양자기술 등에 대미투자를 확대한다. 이 중 조선 분야 투자 규모는 1,500억 달러이며, 전략투자 MOU에 따른 추가투자 규모는 2,000억 달러다.

2. 관세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KORUS FTA 또는 최혜국세율과 15%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관세 체계를 제시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련 232조 관세도 15% 수준으로 조정했다. 향후 반도체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3. 외환시장 안정

한국은 전략투자 MOU와 관련해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해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투자 이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은 투자 금액과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민간 상업협력

양국 정상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 계획, 대한항공의 Boeing 항공기 구매, 미국 조선소·전력망·LNG·원전 분야 협력 등을 환영했다.

5. 비관세장벽 및 디지털 통상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인종 및 배출가스 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농식품 및 농업생명공학 분야의 승인 절차 개선에 협력한다.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규제 및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서 불필요한 차별과 장벽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6. 공급망 및 경제안보

양국은 관세 회피와 불공정비시장 관행에 대응하고, 투자 규제와 조달정책, 핵심 공급망의 경제안보 정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7. 안보 연계

공동 팩트시트는 경제협력 외에도 확장억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산 조선험력, 원자력 협력, 북한 비핵화 및 한·미·일 협력을 포함했다. 이는 대미투자가 통상 사안에 그치지 않고 산업·경제안보 동맹을 결합한 패키지임을 보여준다.

주요 참고자료

1. 백악관,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2. 미국 무역대표부,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 to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3. 산업통상자원부,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4. 산업통상자원부,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정식 출범」
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장관 방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등 집중 논의」
6. Reuters, 「South Korea in talks to invest in nuclear power project in US」
7. Reuters, 「South Korea, US agree on more than \$20 billion gas plant investment in Texas, media reports」
8. 연합뉴스TV,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원전·알래스카 추가 논의」
9. 조선비즈, 「또 다시 알래스카 LNG 투자 꺼낸 美 백악관 “韓, 540억달러 투자할 것”」

다양한 정책 인사이트를
전문적인 시각으로 만나보세요

Korea Follow us on LinkedIn



GR Korea 팔로우하기 →

The GR Company